

철창 안의 노동, 마음도 함께 갇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보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병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무겁게만 느껴졌던 교도소라는 공간을 유쾌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인기 드라마다. 하지만 이면에는 수용자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교도관들의 고충이 숨어 있다. 24시간 수용자 관리와 예기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수많은 범죄자를 감당하는 현실은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간다. 담장 안의 파수꾼, 교정직 공무원이 마주한 직업병에 대해 알아본다.

글 공주영



▶ ■ || 04:57 / 26:05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스틸컷

#01 교도소 안에 갇힌 노동자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교정직 공무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섬세하게 담아 낸다. 특히 팽세윤 교도관(정웅인 분)은 겉으로는 험한 욕설을 내뱉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수용자를 아끼는 반전 매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선 야간 순찰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팽 교도관은 위급한 수용자를 살리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사동 문을 열어젖힌다. 그의 모습에서 규율과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도관의 숙명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서 자살 징후나 폭력 사고의 전조를 읽어내려 밤잠을 설쳐가며 CCTV를 응시하는 모습 역시 실제 교도관들이 겪는 고도의 긴장감을 대변한다.

교정직 공무원은 매일 다양한 죄수들의 분노와 절망을 접한다. 이 같은 직업 특성상 감정을 통제하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팽세윤 교도관이 항상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 수동적인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수백 명의 범죄자를 통제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고자 일부러 거친 외벽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교정직 공무원 중 일부는 긴장과 압박감을 오가다가 심리적 소진과 정서적 무감각에 빠지기도 한다.

#02 감시의 눈 뒤에 가려진 직업병

교정직 공무원들이 겪는 대표적인 직업병은 '과각성 상태'와 '대인 경계심'이다. 24시간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몸의 신경계가 늘 비상대기 상태에 있고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극도의 긴장 상태가 뇌에 각인된 결과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공식포스터

르면, 교정직 공무원이 꼽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 1위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50.1%)’이었다. 그리고 ‘수용자 인권이 우선되는 분위기(37.5%)’, ‘폐쇄된 근무 환경(28.0%)’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2022년에 104%였던 교정 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과밀 수용 상황이 되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 사고도 급증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구조적 과부하와 반복되는 야간 교대 근무는 신체 리듬마저 흔들어놓는다. 교정직 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 중 수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쉬는 날에도 긴장된 몸이 비상 대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3 마음이 먼저 닳아버리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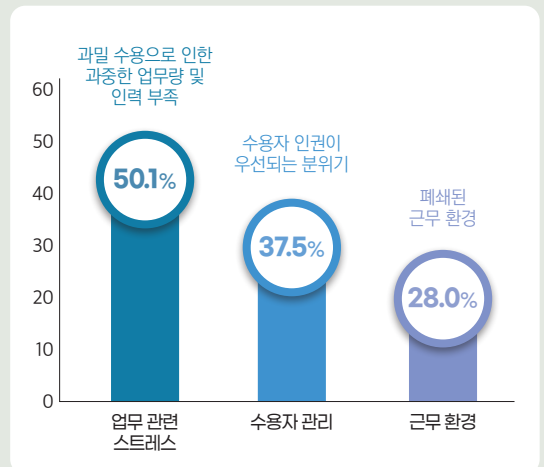
교정직 공무원이 겪는 또 다른 직업병은 수용자의 폭언과 폭행, 고소·고발, 수용자의 자살 목격 등으로 인한 트라우

마다. 실태조사 결과 역시 교정직 공무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며 번아웃과 사회적 단절감을 호소했다. 특히 교정직 공무원의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약 2.7배에 달해, 이들이 마주한 심리적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병은 개인의 체력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닌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이 곧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정신건강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들의 노고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상황이다. 교정직 공무원의 활동이 ‘교정’의 의미보다 ‘감시’의 이미지로만 인식되는 현실에서 드라마 속 팽세윤이 “수용자도 결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수용자를 가두는 감옥의 문은 그 문 안쪽에서 일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마음까지 가두었다. 결국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병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해결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정직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주요 요인



자료 출처 법무부,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